

「한국민족운동사에서 본 고하 송진우」 발표문에 대한 토론문

남 희 숙 (前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김형석(대한민국역사와미래재단 이사장)의 발표문 「한국민족운동사에서 본 고하 송진우 - ‘독립’과 ‘자유민주국가 건설’을 이끈 선구자 -」는 한국 근현대사의 대표적 민족주의자인 고하 송진우 선생(先生)의 활동을 ‘독립’과 ‘자유민주국가 건설’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조명한 연구이다. 발표자는 송진우 선생이 일제강점기에는 3.1운동을 기획하고 다양한 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항일 독립운동에 매진하였고, 해방 직후에는 새 국가 건설을 위해 무엇보다도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항일 독립운동’과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송진우 선생에 대한 역사적 평가의 두 가지 핵심 요소로 삼아 정리한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발표문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3.1운동에서 ‘중앙학교’가 차지하는 역할을 체계적으로 논증하였다는 점이다. 발표자는 1930년에 발간된 잡지 『삼천리』 제10호에 실린 여운홍의 「파리강화회의에 갔다가」라는 글에 주목하여, ‘이승만의 3.1운동 기획설’이나 ‘여운홍의 이승만 밀사 설’ 등이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더하여 현상윤과 최린의 회상기 등을 분석하여, 3.1운동이 국내 여러 곳에서 동시에 발발하여 독립운동으로서 엄청난 폭발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중앙학교를 거점으로 송진우, 김성수, 현상윤 등이 결정적인 조정자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였다. 이는 3.1운동 연구와 관련하여서도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된다.

한편 그간 학계의 일각에서 동아일보 경영진이 보여준 독선과 비민주적 운영에 항거한 기자들의 언론개혁운동이라고 평가하였던 ‘1924년 임시주총 사건’(소위 동아일보 개혁운동)의 진상을 상세히 추적한 것도 이번 발표에서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다. 발표자는 이 사건이 동아일보를 장악하여 사회주의를 전파하는 도구로 삼으려는 공산주의자들과 이에 대항하여 동아일보 사주 측이 벌인 좌·우 대결의 과정이었음을 실증적으로 증명하였다.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 언론 개혁운동의 실상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발표문은 실증적이고 체계적일 뿐만 아니라, 송진우 선생에 대해 토론자가 기존에 몰랐던 사실들까지도 많이 알려준 훌륭한 글이어서 읽는 내내 즐거웠다. 그러나 자신이 토론자라는 현실을 깨닫는 순간, 토론할 문제점을 찾지 못하고 매우 곤혹스러워, 토론자의 부족함을 느끼게 한 글이기도 하다. 이에 토론자는 발표문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발표자가 글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으로서, 독립운동과 자유민주국가 건설을 위해 매진했던 송진우 선생의 사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 근원적인 의식의 배경에 관해 발표자에게 고견을 청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발표문에는 독립과 자유민주국가 건설을 키워드로 하여 송진우의 민족운동을 체계

적으로 정리하였지만, 그의 내면에 이러한 정치적 지향이 자리 잡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예를 들어 발표문에서는 1924년 임시주총사건 등을 비롯하여 송진우가 동아일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산주의자들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으면서 공산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더욱 공고해진 것으로 이해하였다. 물론 이 사건이 송진우의 반공사상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되지만, 토론자는 이보다 더 뿌리 깊은 사상적 배경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역사와 세계사에 대한 송진우의 인식과 관련이 있다.

송진우는 「독서잡기(讀書雜記)」(1937년, 學海)라는 기고문에서 “중학시대부터 나는 특히 역사학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어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시간도 있지마는 교과서 이외의 역사서적에 많은 힘을 기울였었고, 대학시절에는 법학을 전공했던 관계로 법률서적을 주로 보아 왔지마는 사학(史學)에도 늘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고 토로한 바 있다. 또 그가 1926년 국제농민본부에서 보내온 3.1절 7주년 기념사를 동아일보에 게재한 일로 수감되어 옥중에 있을 때 인촌 김성수에게 보낸 편지에서 “책이나 많이 보내 주십시오. 그 전에 보낸 것은 다 받았어요니, 윤리학(倫理學), 동서철학사(東西哲學史), 서양역사(西洋歷史), 서양문명사(西洋文明史), 철학개론(哲學概論) 등으로 대개는 우리 집 책상에 있사오니 그중 페이지 수효가 많은 놈으로 보내주시옵소서”라고 하여 그가 한국사는 물론 세계의 역사에 깊은 관심과 조예가 있었음을 알려준다.

이와 관련하여 송진우의 동아일보 논설 「세계 대세와 조선의 장래」는 그의 역사의식과 현실인식을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이 글은 송진우가 1925년 6월에 하와이에서 개최된 제1회 범태평양회의에 동아일보 주필 겸 특파원 자격으로 참석한 후 귀국하여 1925년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15회에 걸쳐 동아일보에 연재한 글이다. 그는 논설을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나라 4천년의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다음과 같이 힘주어 역설하였다.

“4,000년을 통하여 역사적 변천과 정치적 흥체가 반복무상하였다. 그러나 언제든지 조선인이 조선이라는 관념은 없어져 본 일이 없었으며, 또한 실제적으로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은 엄숙한 사실이다. 환언하면 삼국의 분열은 그 당시 정치 당로자(當路者)의 분열이며 신라·고려·조선의 멸망도 또한 그 당시의 왕위 교대의 흥망변천에 불과하였던 것은 분명한 사실(史實)이 아닌가. 어찌 그러나 하면, 역대 왕조의 변천 흥체에 따라서 만일 조선이 멸망하였다 하면, 어찌하여 4,000년 이래로 조선민족의 문화가 의연히 보전될 수 있었으며, 또한 조선민족의 혈통이 엄연히 존재할 수가 있는가. (중략) 이러한 의미에서 역대 왕조 자체의 정치적 흥망에 불과한 것이고 결코 조선민족 자체의 전체적 멸망, 근본적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을 이에서 굳게 단언하는 바이다. (중략) 특히 우리들이 주의를 기울여 보아야 할 것은 과거 무상한 정치적 변혁에 언제든지 이민족의 세력으로 오랜 동안 간섭 혹은 통치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거절하여온 사실이다. 이것은 원래부

터 조선민족의 혈통이 극히 순수하고 또한 언어와 예속(禮俗)이 이민족의 그것에 비하여 항상 탁월 우수하였던 관계인가 한다.”

이 글에서 송진우는 우리 역사에서 왕조 흥망과 관계없이 면면히 이어진 ‘조선민족사’를 발견하고 이를 강조하면서, 정치적 흥망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조선민족 자체의 전체적 멸망, 근본적 멸망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단언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이민족의 간섭과 통치를 “절대적으로 거절하여온 사실”을 언급하였다. 이는 명확히 일본의 침략과 통치는 우리 역사 속의 왕조 흥망처럼 일시적인 것이며, 우리 민족사는 전체적으로 근본적으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력히 선언한 것이다. 그의 이러한 역사인식 속에서 미래 일본의 패망과 조선의 독립은 당연히 필연적인 것이었다. 그의 항일 독립의지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도 명확히 알 수 있다.

또한 그는 1884년에 일어난 갑신정변을 “4,000년 이래의 신기축(新機軸)을 전개하여 일대 변혁을 시도하려 하였던”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하였다. 그는 조선 혁신운동의 기원을 갑신정변에서 찾았다. 그 이유는 “갑신정변의 사상적 근거가 재래의 정권여탈(政權與奪)과 존주양이적(尊周攘夷的) 사상과는 그 범주를 달리하여 적어도 현대문명을 긍정하여 민족적 복리를 기도(企圖)하는 점에서 기인한 까닭”이라고 보았다. 그 운동의 토대가 광범위한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극소수 계급의 각성에서 출발하여” 너무 급하고 무리하게 추진되어 성공하지 못하였지만, 그 “개국존민(開國尊民)의 큰 이상”은 이후 일파만파로 퍼져 독립협회와 자강회 등으로 이어지고 학교와 학회가 되어 조선민족의 각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갑신정변이 한국 전통시대를 지속적으로 지배해왔던 중국과의 사대관계를 단절하고 양반신분제도와 문벌을 폐지하여 평등한 근대민족국가의 실현이라는 이상을 품고 있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주목한 것이다. 이는 결국 이후 일본의 침략으로 우리의 자주적인 근대민족국가 건설이 좌절되었음을 강조한 것으로도 이해된다. 이와 관련하여 송진우는 1925년 제1회 범태평양회의에서 갑신정변의 주역 중 한 사람인 서재필을 만나 약 20일 간 같이 지내며 시사(時事)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10년 후에는 송진우의 요청으로 서재필이 「갑신정변 회고기」를 1935년 1월 1일 자부터 동아일보 지면에 실기도 하였다. 서재필과의 이 만남은 송진우가 갑신정변에 대한 인식을 더욱 깊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송진우는 같은 글에서 ‘조선의 장래’, 즉 미래에 실현될 조선의 독립을 세계대세의 변화 속에서 읽고 있다. 이를 보면 레닌의 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소련의 등장을 중요한 세계대세 변화의 한 축으로 이해하고 있다. 다만 소련이 ‘적나라하게 세계적으로 난봉행세’를 하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고, 일본에서의 사회주의 수용에 따른 정치적 혼란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그의 경계심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또 이미 1925년에 태평양시대의 도래를 예견하고 미국과 소련의 충돌도정(途程)에 있어 일본과 미국의 충돌이 있으리라 상상하고 있다. 특히 일미의 충돌이 발생하면 ‘거대한 자본’의 미국 세력 하에서 조선의 해방을 희망한다는 표현을 하

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송진우는 우리와 주변 세계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조선의 미래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결국 그의 항일과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민족운동은 바로 이러한 확고한 우리와 세계에 대한 역사인식과 냉철한 현실인식에 기초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발표자께서는 송진우를 깊이 있게 연구해 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토론자의 생각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고견을 듣고 싶다. 앞으로 송진우의 역사 인식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한다. 그로 인해 송진우 선생의 정신세계나 문화운동의 사상적 연원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송진우 선생은 1929년에 발간된 잡지 『별건곤』 1월호에 「평생에 앙모(仰慕)하는 정포은(鄭圃隱) 선생」이라는 글을 실었다. 그는 포은 정몽주를 “정치가로서 외교가로서 학문으로 총의로 모든 것이 고려 475년간에 제일인으로 생각”하며 평생 동안 앙모한다고 하였다. 그는 아마도 정몽주를 자신의 사표(師表)로 삼았던 것 같다. 평생을 정치가로 사상가로 지조를 지키다가 반대파에 의해 비운에 쓰러진 그의 삶과 정몽주의 삶이 오버랩 된다. 이 글을 읽었을 때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고 당당했던 고하의 마음과 함께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꼈다. 이번 토론에 임하며 다시 떠올려 본다.

감사합니다.